

마르 4,35 -41 (2024/6/23 연중 제 12 주일)

건너가고 넘어가고 통과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바다 저편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지나갈 때 거센 돌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돌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실 때 바람과 바다는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도 당신은 아무 관심이 없으시냐고 불멘소리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돌풍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돌풍을 조용히 만들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거센 돌풍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풍랑을 마주했을 때의 두려움이 불안함과 공포에 가까운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은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리시는 크고 무한하신 분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해보고 같이 나누시길 권장합니다.

1) 어떤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고 느끼시나요?

2)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겁을 낼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던 것일까요?